

出版을 爲한 寫眞植字와 原稿紙 改善方向

부산 그래픽 디자이너 협회

새 론 기 획

李 南 連

1. 序 論

現代의이고 새로운 感覺이 要求되는 것이 現實이라면, 先進國의 文化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生活에 도움이 되도록 改善해 나가야 하며, 우리의 것에 알맞는 文化를 創造하고, 經濟的이고 能率의인 方法을 摸索하여, 우리의 生活에 適應토록 해야한다.

意思傳達의 重要한 要素인 文字는 視覺的으로 아름다와야 하며, 可讀性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認定하는 事實에 비추어 볼때, 原稿를 作成하는 마음의 姿勢와 方法, 原稿紙 選擇 問題는 반드시 再考되어야 할 것이다.

2. 現在 使用하고 있는 原稿紙의 問題點

현재 우리들이 使用하고 있는 原稿紙의 規格은 18 切紙에 200 字이며, 1 字의 幅은 1cm 正方形에 行間은 3mm로 되어 있음을 많이 본다. Editorial design을 하는 立場에서 보면, 여러가지 構成要素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意圖가 傳

達될 수 있도록 紙面에 效果的으로 排列하는데 있다. 假編輯이나 Layout 過程에서 늘 느끼는 일이지만, 알아볼 수도 없는 草書를 아무 紙面이나 使用되는 境遇와, 200 字 原稿紙에 作成했다 하더라도, 英文이 混用된 原稿는 欄을 어떻게 賦與하며, 基準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疑心스럽다.

우리가 使用하고 있는 原稿紙는 日本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쓰고 있는 것으로 본다. 原稿를 쓰는 方式을 比較하여 보면, 日本語는 띄어쓰기가 없으며, 句讀點(終止符와 休止符가 있음 “ , . ”은점은 가로쓰기에 使用되며, “ ”고리점은 세로쓰기에 使用됨.)에서 1 字의 幅을 賦與하게 되는 反面, 우리 글은 띄어쓰기를 半角의 幅을 賦與하게 되고, 句讀點에서 全角의 幅을 賦與하게 된다. 英語는 本文으로 많이 쓰이는 文字가, 大文字는 4分之3字(寫眞植字의 16 級인 境遇 12 치 임)의 幅을 賦與하고, 小文字는 대충 半角의 幅을 賦與하게 된다. 띄어쓰기는 小文字의 幅을, 句讀點은 大文字의 幅을 賦與하게 되는 例가 많다. 數字는 全角과 半角,

또는 $\frac{3}{4}$ 字를 賦與하는 境遇가 많으므로, 英文과 混用해서 쓰기가 容易하다. 其他 記號와 符號는 全角과 半角이 많으므로, 우리글과 英文을 混用해서 쓸 수 있는 原稿紙 改善은 不可避한 것으로 본다.

3. 原稿 作成과 寫眞植字의 能率

原稿紙에 글을 쓰는 것은, 印刷를 하기 위한 手段으로, 假編輯이나, Layout, 寫眞植字等의 組版을 하기 위해서 字數를 把握하려는 것이며, 效率的인 作業進行을 爲해서이다. 그러면 寫眞植字 印字 方式에서 뒤끝을 맞추기 爲해서 7~10 字의 餘字를 두고 間格을 調整하게 되므로, 좁고 넓은 字間이 形成되어, 修正을 하게 된다. 그러나, 意圖했던 目的을 達成하기가 어려워지고, 보이지 않은 時間 損失은 많게 된다. 우리들이 校正이나 修正의 差異點을 대강 살펴보면, 活版 組版인 境遇에는 校正을 紙面에 直接 점검하게 되고, 修正 作業은 活字를 交替하고, 空木을 調整, 또는 交替하여, 字間과 行間을 고르게 하는 反面, 寫眞植字 校正은 複寫를 하던가, 面版 作業을 한 原稿에 半透明紙를 씌운 위에 점검하고, 修正字를 다시 印字하여 갈아 붙이게 되고, 脫字를 挿入할 境遇나, 字間調整이 必要했을때, 일일이 字間과 行間을 切斷하고 붙이는 不便과, 全面 印字하는 結果를 招來하게 된다. 여기에서 Operator를 비롯한 修正士나 面版 作業을 하는 Designer에게 支障을 주게되어, 時日은 延長되고, 計劃했던 日程은 蹉跎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現在 實務에 從事하고 있는 Operator의 年齡은 20代가 80~90%에 達한다. 漢字를 알고있는 水準은 正字와 約字를 배웠다면, 漢字의 草書體는 터득을 못한것

이 아니냐? 하는 生覺이다. 그러므로 原稿 作成은 正字로 記入하고, 英文字는 印刷體 大, 小文字로 記入하고, 반드시 校正을 하고 점검을 한 다음, Layout로 引渡하는 것이 作業을 效率的으로 進行하는 秘訣이라 하겠다.

4. 原稿紙 改善의 必要性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40代 以下는 글씨를 작게 쓰는 傾向을 본다. 그것도 그럴것이 大學生의 Note는 7.5 mm 橫線으로 되어있어 文字 쓰는 習慣을 Note에 適應되어 있다. 반드시 原稿紙는 13 mm 行에 다시 適應할 必要는 없다고 본다. 普通사람이 글씨 쓰는 크기는, 한글은 5 mm~6 mm이며, 漢字인 境遇는 6 mm~7 mm에 適應된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原稿紙도 大學生의 Note에 基準을 두거나, 兩面 罫紙에 基準을 두는 것이 옳다는 말이 成立되며, 全角과 半角의 票示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原稿紙 改善의 一選으로 3次에 걸쳐 印刷를 하고, 作成 依賴한 結果, 兩面紙에 基準을 두고 製作한 原稿紙가 좋다는 意見이었으나, 全角과 半角에 神經이 쓰이나, 英文字 記入은 아주 좋다는 意見이었다.

그리하여 18切紙에 450字의 原稿紙를 定하여 봤다. 즉, 字의 크기는 7 mm이고 間格이 3 mm로 했으며, 橫의 字數는 30字에 15行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5. 經濟性

原稿作成 過程에서 正書를 하고, 校正을 했을 境遇, 作業 進行이 20~40%의 時間短縮이 可能하다는 事實이, 實務에서 얻어진 經驗이다. 즉, 計劃한 日程이 30日이 20日로 短縮이 되며, 30명 人員

이면, 20名으로 處理된다는 것이다. 釜山에 補給되어 있는 寫眞植字機는 無慮 100臺에 達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르는 人件費는 30餘名에 該當하는 巨金이다.

現在의 200字 原稿紙를 450字로 體系化가 된을 境遇, 原稿紙의 消耗는 %가 節減하게 되어, 全國的으로 消費되는 量에서 볼때, 考慮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날 經濟的인 面에서 節約이 重要하다면, 적은 量에서 부터 節約하는 마음의 姿勢와, 體系的인 方法이 必要하며. 英文이 混用된 原稿는 字數를 正確히 把握을 못하는데서 오는 時間的 浪費로 因해서 經濟的인 損失을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다.

6. 方法

意識化 運動의 一環으로, 愛國하는 國民性을 더욱 鼓吹시키고, 國語教育過程에서는, 우리말 바로 쓰고, 우리글 바로적기를 原稿紙 記入方法에서부터 새로이 가르치고, 印刷學會에서는 印刷를 必要로 하는 產業體와, 印刷媒體의 實務者들과의 壘談會를 開催하여, 文字로서의 傳達은, 原稿作成이 基本이라는 점에서 疎忽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再認識시키는 한편 學生들을 爲한 編輯 講演會를 갖도록 해야한다. 製作業體에서는, 쉽게 購入할 수 있도록, 生産補給하며, 文藝作品을 募集할 때에도, 原稿紙를 指定하는 등, 正策的인 面으로 普及되어야 할 것이다.

出版을 爲한 寫眞植字와 原稿紙 改善方向

7. 結論

우리나라에서 出版物 製作 活動이 多樣化 되어가고, 많은 量의 翻譯 書籍과, 各 分野의 定期 刊行物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分野에 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이 大部分 專門的인 工夫를 못한 것으로 봤을때, 水準에 미치지 못하는 粗雜한 刊行物이 눈에 띄게 될 것이다. Club에서 發行하는 會報를 製作하는 境遇, 體系的으로 優秀한 編輯을 하고 있는가? 예나 지금이나 變換한 것은 없다고 본다. 無條件 自己 나름대로의 編輯을 하여, 多級한 時日에 製作 依賴를 받았을때, Layout를 해 볼 틈도 없이 寫眞植字를 하여 붙이기에 바쁘다. 여기에다가 人件費나 벌어보겠다는 生覺으로 dumping을 하여, 業界를 紊亂시키고 있는 實情이다. 物論, 編輯에 知識이 있어서 編, 部, 章, 節의 Display Type 文字라던가, Designer의 Illustration의 調和와 本文 選擇 問題를 生覺하여, 視線도 끌어야 되고, 可讀性도 높고, 創意的인 Layout를 할 수 있는 編輯者라면, 出版을 하는 印刷媒體에서도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世界 出版人의 갖가지 影響과 實驗的이고 進步的인 方法을 紹介하여 參考, 또는 刺戟이 되게 해야 할 것이며, 基礎段階에서부터 寫眞植字의 實際理論을 알고, 視覺的 設得을 考慮해야 한다. 그리고 編輯者나 Designer의 意圖를 利解하여야 하며, 固定된 編輯을 除外하고는 Layout에 專念할 수 있도록 環境的 條件과 時間的 餘裕도 重要한 것이다.